

전도주일
설 교

먼저 사랑합시다

<요한복음13:31~35>



임명기 목사 (후쿠오카교회)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2개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흐르는 시간,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찬스, 기회를 의미합니다.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찬스, 기회, 결단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일상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크로노스이고, 그 시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순간에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에 탄생하신 성탄절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은 일반적인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주여지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행7:17)에서 카이로스(행7:20, 앱5:16)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이 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행7:17, 20, 앱5:16).

2. 새 계명

그런데 요한복음 13장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기록하면서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도 아니고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도 아닌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라’라는 단어는 씨 뿌릴 때(과종의 시기)나 결혼적정기 등 최적의 시간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정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따른 것 이지,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함께 만찬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고, 사랑에 대해 가르치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으셨고,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요14장)로 이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21:16)며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며 끝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13:34-35)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새 계명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19:18)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새’라는 의미를 헌 것과 새 것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폐하고 새로운 계명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말씀이 본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은 이 사랑하는 방법을 “네 자신과 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22:39), 마가(12:31), 누가복음(10:27)의 세 공관복음도 레위기 말씀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아”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제한적이고 가식적인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무제한적이고 희생적인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분이 보이신 그 사랑의 모범을 보고 배워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 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 먼저 사랑합시다

전도주일을 맞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13:35).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전도는 없습니다.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를 모델(role model)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또 명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이신 모범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価格: 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각 지방회 목사부회장/장로 부회장의 신년의 바램

서남지방회부회장 <박재덕 장로>



총회 117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 지켜지고 항상 약자를 위해 섭기고 함께 기도하며 고난을 극복해 온 역사입니다. 주님이 2025년에도 총회 모든 교회 위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방회와 개교회로서는 현재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장로가 관련된 교회

내의 불협화, 미자립 교회의 재정 문제, 심각한 고령화, 후계자의 문제, 목사의 휴식과 재교육, 특히 차세대 청년회 등이 있습니다.

교회의 평화와 치리를 맡겨진 장로야말로 솔선하고 회개하고 자신보다도 주님의 뜻을 제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신도들의 신앙과 지혜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이 비상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에 의해 혼돈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주님의 공의로 국난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박재덕장로는 2024년에 시무장로를 은퇴했습니다.)

관서지방회

2025년 신년사경회 개최 구자우목사 강사로 교역자 세미나

관서지방회 전도부 주최의 2025년 신년사경회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는 주제로 1월 12일(주일)과 13일(월) 양 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구자우목사(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를 강사로 초빙했다.

첫째 날 오사카 지역은 주일 오후 3시에 오사카북부교회에서 개최되어(75명 참석),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로마서 12:1-2)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둘째 날은 교토지역으로 오후 6시부터 교토남부교회에서 개최되어(30명 참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에베소서 6:10-20)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양일에 걸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년의 마음가짐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13일 오후 2시부터 교토남부교회에서 구자우 목사를 강사로 <이며징 시대와 새로운 목회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역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특히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 앞에 교역자들의 목회전략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보고 : 전도부장 조영철목사)



재일본한국YMCA 2024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개최

2024년 12월 15일 오후, 재일본한국YMCA가 주최하는 '2024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동경성시화운동본부, 한국CBMC일본연합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어 관동 각 교회와 단체에서 약 200명이 모였다.

강영진목사(동경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한국에서 이성희 원로목사(서울연동교회)를 초청하여 성탄절 메시지를 들었다. 이후 2부로 프로그램이 이어져, 찬양과 청소년 장학금 전달 등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와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

서부지방회

한일교류 신도대회 개최 교단 호고교구와 공동으로 87명 참가

1월 13일(성인의날) 재일대한기독교회 서부지방교회와 일본기독교단 호고교구의 공동개최로 제39회 한일교류 신도대회가 재일대한기독교회 고베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84년에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과의 맷어진 선교협약에 발맞춰 서부지방회와 교단 호고교구와의 협약을 실천하고자 1985년 이후 매년 1월 성인의 날에 개최해 왔다.

이번 2025년은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의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대회이기도 했다. 당일 87명(서부지방회 46명, 호고교구 41명)의 많은 신도들이 참가했다.

개회예배는 김무박(고베교회) 대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최후에 승리를 확신하라』(로마서 8장31절~34절)는 제목으로 한세일목사(고베교회)의 설교후 한세일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며,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드린 현금은 노토반도(能登半島) 피해자구원을 위해 드렸다.

새로운 성인 축복식이 테라사키마키(寺崎眞)목사(교단 兵庫松本通교회)의 사식으로 3명의 성인식이 은혜와 축복안에서 진행되었다.

그후 한신아와지대지진 30주년을 경험한 김 도시코 사모(고베교회)와 시미즈 미사오씨(교단 고베영광교회)의 간증이 있었다.

그 후에 6분단으로 나누어 점심과 더불어 신앙생활과 여러 문제점을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순서의 <평화의 시간>에는 시온합창단(단장 : 심정아 명예권사)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의 찬양을 포함해 4곡의 심금을 울리는 합창에 이어 소프라노 야마모토 모토코 씨의 독창이 있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 30주년의 의미깊은 시간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은 시간이기도 했다.

한일의 신도가 코로나로 인한 2년을 활동할 수 없었던 아픈 기간을 빼 40년의 긴 시간을 통해 서로가 영적인 교류가 이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관계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신도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보고 : 고베 교회 김무박)



복음신문 3월호 휴간의 알림

사정에 따라 복음신문 2025년 3월호를 휴간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날방

정초 사경회 및 도제직회 개최 주문홍목사를 강사로 맞아

1월 12일(주) 오후4시부터 오후8시까지 고쿠라교회(온라인 병용)에서 정초사경회 및 도제직회가 열렸다. 강사는 주문홍 목사(고쿠라교회), 주제는 “네 말의 신을 벗으라” “足から履物を脱ぎなさい”(출애굽기3 : 5)이었다.

서남지방회와 고쿠라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화인(華人)교회'를 포함해 45명(온라인 6명 포함)이 참가해 찬양과 말씀 그리고 애찬의 시간을 나누었다. 주문홍목사는 고쿠라교회에 부임하여 23년간 교회와 서남KCC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증과 함께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이 일본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일본 교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그 고난을 극복해 왔다. 앞으로도 일본 교회와의 관계를 잘 해가야 한다”며 말씀을 전했다.



주문홍목사는 올해 3월에 은퇴한다.
그 후에 도제직회가 이어져 지방회장 신치 선 목사의 사회 아래 각 교회의 현황 보고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 : 임명기)

大阪北部教会

김형식 명예목사가 소천 제40회기 총회장을 역임, 총회활동봉사



2024년 12월 20일, 오사카북부교회 김형식 명예목사가 소천하여 조영철 목사의 집례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향년 93세였다.

故·김형식목사는 1931년 한국의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어릴 때에 부모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기독교단 小松教会(石川県)의 聽波克己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日本聖書神学校를 졸업한 후 1963년 재일대한기독교회 제19회 정기총회에서 목사인수를 받았다.

新義교회, 水島교회, 折尾교회 목회를 거쳐 1983년부터 2001년까지 大阪北部교회를 섬겼다. 목회 기간 중 3년간(1964~1967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故人은 在日大韓基督教会 제40회기(1989~1991년) 총회장을 역임하며 총회의 모든 활동을 위해 일평생 섬겼다.

센다이(仙台)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동북지방 복음선교의 거점으로서

마영렬 목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센다이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며 축복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센다이교회를 통하여 일본 동북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센다이교회의 역사는 1908년 설립된 일본 최초의 재일대한기독교회로가 동북지역 마이너리티인 재일동포와 일본인의 구령을 위하여 1984년 12월 2일에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은 김치복목사와 창립 신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선진들의 믿음과 노력은 현재의 센다이교회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으며, 김치복목사의 은퇴 이후 계속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의 2대 김근식목사와 3대 서동일목사와 신도들의 혼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당 건축과 선교사 지원 등으로 큰 협력을 부천제일감리교회로부터 받았으며,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과의 선교협력은 센다이교회 설립과 같은 해에 시작되어, 지금도 일본기독교단 동북교구와 연합하여 선교협력의 교류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센다이교회는 일본 동북지역 복음화의 중심 교회로서 재일

외기협(外キ協) 제39회 전국협의회 및 전국집회 개최

1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KCC 회관에서 외기협 제39회 전국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협의회(외기협)”가 주최했으며, 일본 각 교파 및 단체와 각 지역 외기연에서 총 44명이 참가했다(그중 KCC 참가자는 8명).

“재일 코리안 · 이민자 ·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일본자유감리교단 총회의 요네자와 스미코 목사가 개회 설교를 맡았으며, 외기협 사무국의 아키바 쇼지 씨가 기조 보고를, 이어 IKUNO · 다문화 플랫 대표이사 모리모토 미야코 씨가 “민족 보육과 IKUNO · 다문화 플랫 활동”, 우토로 평화기념관 부관장 김수환 씨가 “우토로를 넘어서는 이야기”, 사토 노부유키 씨가 “외국인등록법 · 출입국관리법에 맞선 39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23일 밤에는 나고야가쿠인대학의 이상훈 교수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선교론과 외기협 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고, 24일에는 각 외기연과 교파/단체의 2025년 계획 및 향후 중장기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NCC 총간사 오오시마 카오리 씨의 폐회기도로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오사카교회에서 제39회 전국 기독교인 집회가 열렸고, 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하여 약 80명이 참석했다. 마에다 반요 카톨릭 추기경의 메시지에 이어, “지역에서 다민족 · 다문화 공생의 천막을 펼치자”라는 주제로 간사이 지역 5개 교파 대표자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KCC의 지문 거부 투쟁에서 시작된 외기협은 일본 여러 교회들이 함께한 획기적인 애큐메니컬 운동으로, 39년간 지속되어 왔다. 외기협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며 현재 제3기를 구상하고 있다. “역사와 마주하는 이민 사회”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우리 총회와 일본 내 모든 교회의 선교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보고 : 신용섭)



대한기독교회의 선교 정신을 따라 동북지역을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비전과 부흥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다문화와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로 자리 잡은 센다이교회의 중심 가치는 예배, 제자훈련, 일대 일 양육을 통한 신도들의 영적 성숙과 사명 실천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신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있다”(고린도전서 15:58)는 말씀처럼, 센다이교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살아가는 소망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명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센다이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며, 새로운 비전과 열정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센다이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와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기고

1950년대 KCCJ 오가키 교회 시대의 추억

박 현 육 목사

어느새 나이가 곧 만 75세가 되는 KCCJ 재일 2세이자 은퇴 목사인 나는, 일본의 패전 후의 혼란 시대, KCCJ 재건기에 전국을 달리며 분투한 재일 1세의 아버지, 박명준 목사의 전성기인 1950년대를 지금 되돌아보고 있다. 7인 형제자매의 6번째인 나와 7번째 여동생(작년 5월 말 소천)의 출생지였던 오가키 교회 시대이다. 당시 주일 학교도 청년회도 활발해, 그 멤버 중에서 4명의 목사가 배출되었다. 필자인 나, 그리고 김성제, 서정순, 김건이다.

나 개인의 목회력 및 직업력을 미리 약기한다. 1976~2002년 KCCJ 전도사/목사, 1983~1988년 독일 튜빙겐 대학 신학부에 유학(신학 박사), 1994~2018년 도쿄신학대학 신학교수, 2018.4~2025.3 동 대학 특임 교수, 2003~2018년 일본기독교단 치토세 후나마시교회 겸무 주임목사, 2020~2024년 야마나시 에이와학원 원장, 2021~2025.3 야마나시 에이와대학 학장.

아버지의 나고야 교회 부임을 계기로 가족이 오가키를 떠나 실로 65년 만인 지난 가을 10월 하순에, 누님들이 그리운 오가키교회를 방문했다. 뾰족 솟은 모자 모양의 붉은 지붕색이 짙은 갈색으로 바뀐 것 외에는 교회당 외형도, 내부도, 목사관도 그 당시 그대로였고, 오가키교회의 현재 담임인 채은숙 목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한다.蔡牧師에게 누님들이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알게 된 총회 사무소의 김병호 간사의 의뢰를 받아 내가 당시의 추억을 게재하고 있다. 추억을 떠올리려 하지만 나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단편적인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누님들의 추억에 의지에 적고자 한다.

그 무렵 교회 부지 주위에는 보리밭이 펴져 있었다. 가을이 되면 어머니는 작은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큰 아이들도 모두 데리고 가서, 보리밭에서 메뚜기잡이를 하며 놀게 두었고, 혼자 자유롭게 큰 소리로 찬송가를 마음껏 부르곤 하셨다. 교회 부지 내에는 코스모스가 잡초처럼 널리 펴져 피어나고 있었던 것, 또 정원의 일각에는 (열마리 이상의) 닭을 기르고 있어서 매일 계란을 낳았다. 염소도 한 마리 있었는데 (염소우유는 우유 대신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르고 있었다. 귀여운 토키도 (이 토키 고기는 식량으로 한 적은 없었지만) 있어 여러 동식물들이 북적거리며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어머니는 식량난의 시대였지만 지혜롭고 재미있게 이것저것 궁리를 하며 기르셨다. 한적하고 느긋한 목가적인 시골 풍경이 주위에 있었다. 저녁이 되어 멀리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부키야마伊吹山」 가 선명하게 보이곤 해서 어머니는 이 「이부키야마伊吹山」 를 언제까지나 그리워하셨다.

그 무렵 교회는 어른 예배뿐 아니라 아이들의 일요일 학교, 청년회 등도 활발했고 성도들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고 모두 모이는 것을 마냥 즐거워하였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절에는 장식도 행사도 모두 활기찼고, 밝은 마음으로 축하했던 그 무렵이 그립다. 교회의 현판 앞에는 아버지가 손으로 쓰신 「축성탄」 간판을 중심으로 훌륭한 장식을 하고, 교회 안에도 이것저것 트리와 장식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교회당의 천장 기둥 만국기가 장식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크리스마스 당일은 아이들이 노래나 춤, 성극 등 준비해서 발표하고, 매우 활기차고 즐겁고 기뻤던 당시의 모습이 뇌리에 남아있다. 그 밖에도,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도는데 각각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마지막으로 한 집사의 집에서 따뜻한 오시루코(お汁粉)를 대접받은 일과 미국, 캐나다로부터 보내온 현옷을 교회 회원들 모두가 기쁨으로 나누었던 일들이 떠오른다.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로서 전성기였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전성기의 시대에) 아이의 마음에도 ‘왜?’ 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아침 일찍 일어난 누나는 조용히 살짝 문을 열고 교회당 안을 들여다보니 누군가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갈등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잘 보니 그것은 아버지였다! (깜짝 놀라서 조용히 문을 닫았지만....) 그런 모습의 아버지를 목격한 것은 아이였던 누나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어째서? 교회에서 훌륭하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인 아버지가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일이 있는 것일까?’ 라고 정말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이 일은 상당히 오랜 시간 누님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인생의 황혼의 시기에 자주 생각하지만, 그때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교회가 사람의 눈에는 순조롭고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 그늘에는 아버지는 목사이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고통, 아픔, 약점, 의심, 그 외 경제적·인적인 많은 문제를 안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영혼」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와 새로운 격려를 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과 갈등하는 것과 같은 진지한 기도를 항상 드려야 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기도가 마지막 날까지의 아버지의 지지가 되고 인도가 되어 살아있는 신앙과 희망의 근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매일의 가정 예배도 빼놓지 않았으셨다.

오로지 신앙 한 길로, 전도 한 길로, 사명에 살았던 아버지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아직 어두운 이른 아침 그 교회당 안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계셨던 그 모습과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목사관에는 자주 몸이 불편한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하룻밤 묵어갔던 그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이 부족해, 걱정의 연속 속에서도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섭기는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도 훌륭하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운 오가키 교회가 교회 회원은 적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이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 가득하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오가키교회 뿐만 아니라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린다.



<公告> 2025年 総会奨学生 募集案内

総会神学生として各地方会にて認定され、1年を経過した者が申請できます。書類は総会事務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募集人員: 3名 ○支給金額: 年額 200,000 円／1人
- 支給期間: 1年間 (受給者は、継続して新たな申請必要)
- 必要書類: ①奨学金申請書 ②在学証明書 ③成績証明書 ④履歴書 ⑤堂会長推薦書 ⑥総会神学生認定書 (各地方会試取部) ⑦各地方会長承認書
- 締め切り: 2025年4月30日必着 ※書類提出先: 総会事務局